

그룹홈 아동을 위한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연구

강 기 정* (천안대학교 기독교복지학과 교수)

정 은 미*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본 연구는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인 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룹홈은 가정위탁보호와 시설보호 사이의 중간형태로서 요보호아동에게 생활공간 뿐만 아니라 가정보호를 대신하고 시설보호의 한계를 극복해 주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그룹홈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자아성장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룹홈 아동들에게 내적 보호요인을 증진시키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며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확립시켜 주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2-6학년의 그룹홈 아동 5명에게 총 8회의 인간중심이론을 중심으로 한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도구로는 Coopersmith(1967)와 Pope, McHale과 Chaighead(1988)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연구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결과를 쌍표본 t-검증과 맨-휘트니의 U검증법(Mann-Whitney U Test)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을 실시한 그룹홈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총체적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둘째, 회기별 집단원간의 양상은 회기가 지나면서 응집력이 형성되고,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증진되었다.

셋째, 개인별 변화는 전반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가 증진되어 충동성과 공격성이 낮아지고, 문제행동이 적어졌다.

본 연구는 그룹홈 아동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아존중감과 같은 내적 보호요소를 증진시킴으로 정서문제와 행동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후속연구에서는 그룹홈 아동을 위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학습습관 향상 프로그램, 진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룹홈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사회복지 실천적 접근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장기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